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작품들의 향연

한국전통문화전당 전통문화 융·복합 상품 전시·판매

'전통문화 융·복합'을 주제로 한 유명 작가들의 작품 전시가 한국전통문화전당 3층 갤러리 속에서 개최돼 주목을 끌고 있다.

이번 전시는 한국전통문화전당이 지난해 9월부터 올 2월까지 ▲2016 전통문화 융·복합 신진작가 상품개발 ▲2016 전통문화 융복합 상품화 지원 사업을 통해 선정한 작가 26개 팀의 작품이 전시와 함께 판매도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번 전시 작품들은 그동안 2017 서울리빙디자인페어와 서울 DDP 살림터에서 각각 전시됐던 것들로, 공모사업의 선정자인 한국전통문화전당에 대한 장정의 마무리를 짓는다는 데 전시의 의미를 두고 있다.

2016 신진작가 전통문화 상품개발은 전통문화지원에 기초해 실용성과 미

적가치를 융합한 상품 개발을 위해 전국의 40세 이하 작가들을 대상으로 공모해 10개 팀을 선정했으며 4번의 워크숍과 전문가 멘토링을 통해 상품성 있는 결과물을 도출했다.

특히 '2017 서울리빙디자인페어'에서 호평을 받은바 있는 서밀하 작가의 '창호문 자카드 도트'는 전통 소재의 창호문양을 자카드로 직조한 원단에 담아내 전통을 현대적으로 완성도 높게 해석했다는 평가를 받으며 관람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기도 했다. 이 작품은 전시기간동안 20개 이상의 판매고를 올렸다.

2016 전통문화 융·복합 상품화 지원 사업은 '상품화'라는 공모 사업명으로 걸맞게 지난 전시에서 주문과 판매로 이어졌으며, 작가에게는 작품 전시에 대한 홍보와 매출을 전담하는 사업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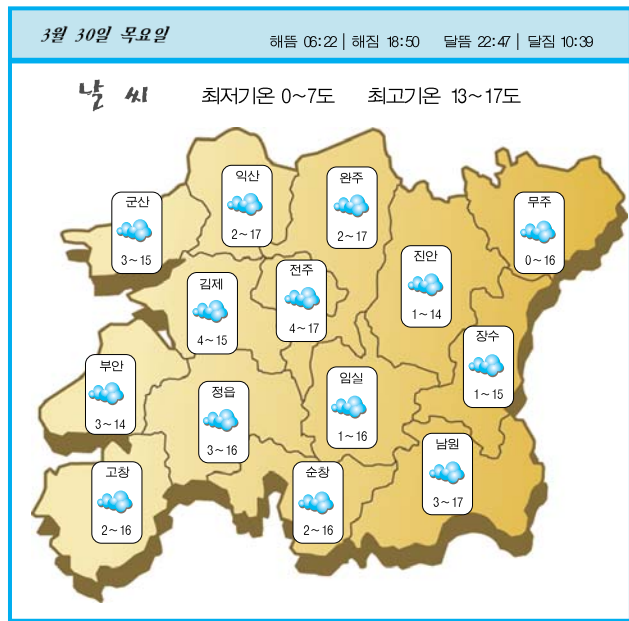
성과를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수확을 가져다 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도자소재로 현대상 호통을 제작한 진정욱 작가는 공예품은 비싸다는 편견을 없애고 저렴한 가격과 양 증맞은 모양 그리고 호통이라는 전통 소재로 큰 판매 실적을 거뒀다. 이번 작품들은 앞서 서울리빙디자인페어에서 하루 10개 이상을 판매하는 성과를 거둔 작품들로 단순히 전시에 머물지 않고 매출로 이어지는 상품성까지 겸비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2년 연속 전당의 사업지원을 받은 장세환 작가의 작품 'Lighting 2 in 1' 작품은 상품의 제작부터 상품화까지 시장수요에 걸맞게 발 빠르게 상품을 개발한 제품으로 완성도를 높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장 작가는 지난해 케이콘(KCON) 2016 LA에 이 작품을 출품했고, 이번 서울 전시기간 동안에는 5건 이상의 주문 제작 판매고를 올리기도 했다.

각 공모의 전시 상품은 현재 신세계 면세점에서 운영 중인 '한수' 매장과 DDP의 모던마켓 플레이스에 입점했거나 추가 입점 조율 중이다. 국내 최대 수공예 어플리케이션인 아이디어스(idea)에서도 7가지 제품에 대해 영업 입점 문의가 온 상태다.

이번 전시는 6개월 동안 전국의 공모 선정자의 노력과 고민이 녹아든 전통문화 생활용품들 '관람객과 소통하며, 사고 싶은 전통'으로 만나 볼 수 있는 자리라는 점에서 의미를 더 하고 있다. 한편 이번 전시는 4월 2일까지 전시될 예정이며 이후 재정비를 통해 상설 전시로 전환·운영될 예정이다. 오태수 원장은 "이번 전시를 통해 새로운 감각으로 생활 속에 스며든 전통을 현대 생활에 조화롭게 활용하도록 가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며 "전통문화 융·복합 상품에 관심 있는 시민들의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민근기자



학교운영위원회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

도교육청, 청탁금지법 안내 자료

'민약 민간인 신분의 학부모가 학교운영위원회가 됐다'면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다. 29일 전북도교육청은 새학기를 맞아 청탁금지법 안내 자료를 냈다. 이 자료에서 학교운영위원회와 학교폭력자치위원회의 학부모위원도 청탁금지법에 따른 공무수행시간에 해당한다며 업무수행에 대해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금지와 금품 수수 금지 등 일부규정에 적용된다고 밝혔다. 또 신학기를 맞아 교사와 면담 시에 음료수 제공도 청탁금지법에선 담임교사와 교과담당교사가 학생에 대한 평가·지도를 상시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만큼 선물 가액기준 5만원 이하라도 안 된다고 덧붙였다. /정해은기자

다만 전 학년 종업식을 마치고 다음 학년에 진학한 이후에는 5만원 이하 선물은 가능하다. 스승의 날에 학생들이 돈을 모아 선생님께 5만원 이하의 선물을 하는 경우에는 예외조항에 해당되지 않아 금지되며 카네이션은 사회상규상 허용된다. 이외에 학교 운동회에 참석한 학부모나 지역주민에게 식사나 선물을 제공하는 것은 청탁금지법에 제한을 받지 않으며 참석자 중에 공직자 등이 있다면 학부모의 일원으로 서 참석자 모두에게 일률적으로 제공되는 식사와 선물을 제공하는 것은 사회상규상 허용된다. 또한 학교축제 때 학부모회에서 떡볶이를 판매한 수익금을 학교발전기금으로 기증하는 것도 가능하다. /정해은기자

익산가온초, 생사 가르는 골든타임을 지켜라

올해 첫 개교를 한 익산가온초등학교는 29일 오후 교내 강당에서 전북대학교병원 이정문 교수를 초청, 교직원 50명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에서 이 교수는 "심폐소생술은 심장이 멎는 위급한 상황에서 전문 응급의료인이 현장에 도착하거나 환자를 병원으로 이송할 때까지의 생명을 연장하기 위한 중요한 과정이다"면서 "우리가 흔히 골든 타임이라고 부르는 이런 초기 과정을 어떻게 수행 하느냐에 따라 소중한 생명을 살릴 수도, 잃을 수도 있는 생명구조의 첫 과정이다"고 소개했다.

이 교수는 이날 심폐소생술의 중요성과 방법에 대해 이론으로 강의할 한데 이어 숙련된 강사의 시범에 따라 교직원들은 심폐소생술 인형으로 직접 응급처치를 실시하는 등 체험의 기회를 가졌다.

심폐소생술 연수에 참여한 교직원들은 "위급한 상황에서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대응하면 소중한 생명을 살릴 수도 있다는 체험을 하게 된 것이 무엇보다 큰 보람이었다"면서 "특히 생활 및 교육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급상황에 침착하게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소중한 기회였다"고 말했다. /정해은 기자



익산가온초등학교는 29일 오후 교내 강당에서 전북대학교병원 이정문 교수를 초청, 교직원 50명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했다.

2016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결산검사 실시

전북도교육청은 2016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결산검사가 내일부터 내달 8일까지 열흘간 실시된다고 밝혔다. 결산검사는 결산보고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하기 전에 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이 결산서 확인 및 재정집행의 적정여부 등에 대한 회계검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그 결과를 다음연도의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에 반영하게 된다. 결산검사위원은 도의원 3명(최진호·정호윤·정진세), 세무사 2명, 전직공무원 5명 등 총 10명이다. 검사 범위는 2016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재무제표, 성

과보고서, 결산서의 첨부서류, 금고의 결산 등이다. 도교육청의 2016회계연도 세입결산액은 2조9,959억원, 세출결산액은 2조7,541억원, 세계잉여금 2,418억원, 이월액은 1,035억원, 보조금잔액 9억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은 1,374억원이나 이중 555억원은 이미 본예산에 편성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결산검사에 적극적으로 성실하게 임하겠으며 결산검사 결과 제시된 의견을 충실하게 반영하여 투명하고 건전한 재정 운영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정해은기자

국립승리사립 전주한옥마을 유네스코 음식향의도시

전주, 한눈에 반하다

사람의 도시 품격의 전주